



## 서북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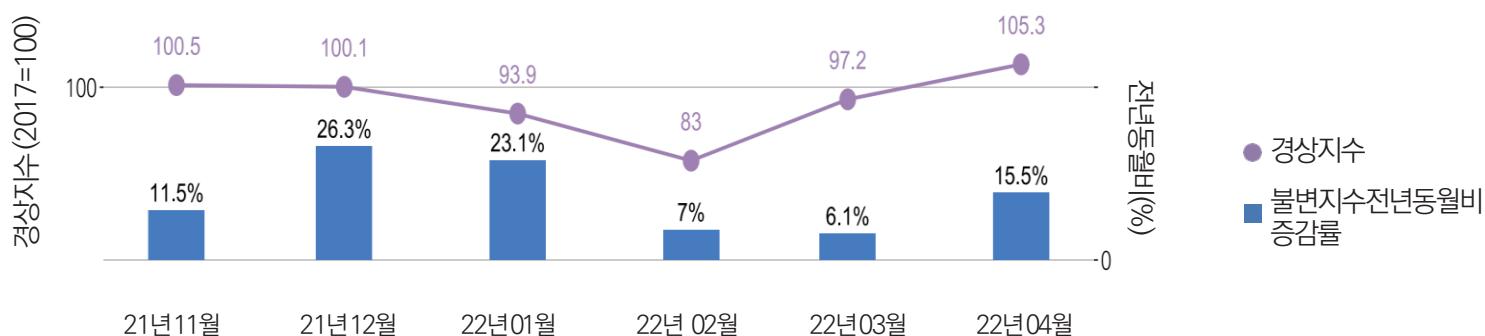
### • 서북권 소비경기지수는 (전년동월대비) 15.5% 상승. 4월 서울 권역 중 가장 양호

- 전년동월대비 +15.5% = 소매업의 기여도 +4.6%p + 숙박·음식점업의 기여도 +10.8%p  
(각 업종별 기여도= 각 업종별 기여율 × 소비경기지수 증감률, 소비경기의 증감률은 업종별 기여도의 총합)  
※관련설명은부록의기여도참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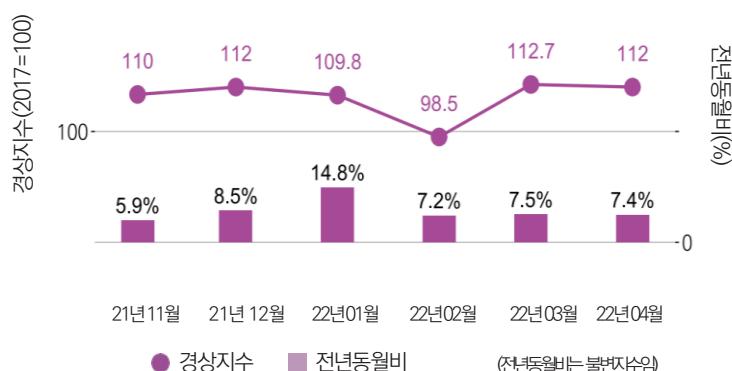
### • (전년동월대비)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7.4% 상승, 숙박·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도 28.8% 상승

- 서북권 소매업은 가전제품·정보통신(3월 6.9% ⇨ 4월 13.6%), 무점포소매(3월 13.7% ⇨ 4월 13.5%) 등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의복·섬유·신발(3월 -7.8% ⇨ 4월 13.3%)이 증가세로 전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, 문화·오락·여가(-6.6%), 기타 가정용품(-15.6%) 등 일부 세부 업종이 하락세를 나타내며 소매업 오름폭은 (전월보다) 유지. 서울 권역 중 유일하게 가전제품·정보통신(13.6%)이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
- 4월 서북권 소매업은 가전제품·정보통신, 무점포소매, 의복·섬유·신발, 기타상품, 음식료품 등의 순으로 소비증가
- 반면 연료, 기타가정용품, 문화·오락·여가 등의 순으로 소비부진
- 서북권 숙박·음식점업도 숙박(73.7%)과 주점·커피전문점(61.6%) 등의 세부 업종이 대폭 상승하고 음식점(15.4%)이 증가세로 전환하면서 오름폭은 크게 확대
- 4월 서북권 숙박·음식점업도 숙박, 주점·커피전문점, 음식점 등의 순으로 소비증가.

## I 서북권 소비경기지수



## I 서북권 소매업 소비경기지수



## I 서북권 숙박·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

